

2003. 9. 15, No.74

☐ Trade Focus

- Focus 1 : 운송수단(해상·항공운송)별 수출동향 /1
- Focus 2 : 주5일 근무제 도입이 무역업계에 미치는 영향 /4
- Focus 3 : 세계은행의 2004년 세계경제 전망 /6
- Focus 4 : 중국의 가전 유통경로의 변화 /7

☐ 세계 경제동향 Briefs

- G-10 중앙은행 총재들, 세계경제 회복 낙관 /9

☐ 동북아/FTA News

- 광동성,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로 실업률 3% 유지 /10
- 일본 상장기업 경상이익 사상 최고 전망 /10
- 태국-인도 FTA 기본협정, 10월 체결 전망 /11



KITA

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



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4701호

Tel: 6000-5174 ~ 7 Fax: 6000-5170

홈페이지 : <http://tri.kita.net>

Focus 1

운송수단(해상·항공운송)별 수출동향

1. 개황

□ 금년 1~7월중 운송수단별 수출(금액기준)을 보면, 선박을 이용한 해상운송이 약 70%, 항공운송은 약 30%를 차지

— 1990년에는 해상과 항공운송의 비중이 각각 82.2%와 15.9%로 지난 10여년간 항공운송의 비중이 2배 정도 증가

- 항공화물의 수출이 증가하는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이 신속한 운송을 요하는 반도체, 무선통신기기, 컴퓨터 등 첨단 IT제품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임

	'90	'95	'00	'02	'03. 1~7
○ 항공화물 수출(억달러)	103	332	525	481	313
○ 3대 IT제품 수출비중(%)	12.6	19.1	28.2	26.6	26.0

<운송수단별 수출비중 추이(금액기준)>

	1990	1995	2000	2002	2003. 1~7
항공화물	103(15.9)	332(26.5)	525(30.5)	481(29.6)	313(29.9)
해상화물	535(82.2)	915(73.1)	1,192(69.2)	1,140(70.2)	731(69.9)
합계	650(100.0)	1,251(100.0)	1,723(100.0)	1,625(100.0)	1,046(100.0)

주 : 1. ()내는 비중 2. 합계는 일부 기타 포함

자료 : 한국무역협회 KOTIS

□ 금년 1~7월중 각 항구·공항 공항별 수출은 부산항이 378억달러로 전체의 36.1%로 최대이며, 다음이 인천공항 311억달러, 울산항 85억달러의 순임

<항구/공항별 수출순위(금액기준)>

	1위	2위	3위	4위	5위
항구/ 공항	부산항	인천공항	울산항	인천항	평택항
수출액(억달러)	378(36.1)	311(29.7)	85(8.1)	49(4.7)	44(4.2)

주 : ()내는 비중

자료 : 한국무역협회 KOTIS

2. 해상화물

□ 품목별 해상화물 수출 : 자동차, 선박, 석유제품 등 중화학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

— 자동차, 선박, 철강제품 등 전통적인 제조산업의 수출품들의 해상화물 수출비중이 높음

<5대 해상화물 수출액 및 그 비중>

(단위: 백만달러, %)

순위	2002년			2003. 1~7월		
	품 목	해상수출	비 중	품 목	해상수출	비 중
1	자 동 차	14,774	100.0	자 동 차	9,714	100.0
2	선 박	10,857	99.9	선 박	7,023	99.6
3	석유제품	6,381	100.0	석유제품	4,116	100.0
4	합성수지	4,944	99.8	합성수지	3,450	99.9
5	컴 퓨 터	4,086	31.6	철 강 판	3,127	99.9

주 : 비중은 해당품목의 총 수출액 중 항공운송이 차지하는 비율

□ 국가별 해상화물 수출 : 중국, 미국, 일본, 홍콩, 인도네시아의 순

— 해상수출 비중은 인도네시아가 88%, 중국 77%로 높은 편임

<5대 해상화물 수출국의 금액 및 그 비중>

(단위: 백만달러, %)

순위	2002년			2003. 1~7월		
	국 가	해상수출	비 중	국 가	해상수출	비 중
1	미 국	21,437	65.4	중 국	13,863	77.2
2	중 국	19,025	80.1	미 국	12,278	66.3
3	일 본	10,295	68.0	일 본	6,470	68.3
4	홍 콩	5,450	53.7	홍 콩	3,267	44.3
5	인도네시아	2,766	87.9	인도네시아	1,840	87.9

주 : 비중은 해당국가의 총 수출액 중 항공운송이 차지하는 비율

3. 항공화물

□ 품목별 항공화물 수출 : 반도체, 무선통신기기, 컴퓨터 순으로
IT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음

— 반도체는 총수출의 98%, 무선통신기기는 87%, 컴퓨터는 74%가 항공화물로 수출

<5대 항공화물 수출액 및 그 비중>

(단위: 백만달러, %)

순위	2002년			2003. 1~7월		
	품 목	항공수출	비 중	품 목	항공수출	비 중
1	반 도 체	16,338	98.2	반 도 체	9,681	98.1
2	무선통신기기	11,630	85.4	무선통신기기	8,278	86.7
3	컴 퓨 터	8,854	68.4	컴 퓨 터	5,881	75.3
4	금 은	973	90.4	금 은	702	91.2
5	의 류	911	25.0	영상기기	578	20.4

주 : 비중은 해당품목의 총 수출액 중 항공운송이 차지하는 비율

□ 국가별 항공화물 수출 : 미국, 홍콩, 중국, 일본, 대만 의 순임

— 특히, 중국으로의 항공화물 수출은 최근의 무선통신기기 및 반도체 수출의 호조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음

○ 홍콩, 대만에 대한 수출은 절반 이상이 항공화물 수출

<5대 항공화물 수출국의 금액 및 그 비중>

(단위: 백만달러, %)

순위	2002년			2003. 1~7월		
	국 가	항공수출	비 중	국 가	항공수출	비 중
1	미 국	11,337	34.6	미 국	6,228	33.6
2	중 국	4,714	19.8	홍 콩	4,097	55.6
3	홍 콩	4,692	46.2	중 국	4,083	22.7
4	일 본	4,603	30.4	일 본	2,899	30.6
5	대 만	4,173	62.9	대 만	2,102	56.8

주 : 비중은 해당국가의 총 수출액 중 항공운송이 차지하는 비율

Focus 2	주5일 근무제 도입이 무역업계에 미치는 영향*
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□ 무역업계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의 영향으로 임금부담 증가와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능력 감소를 가장 우려

— 임금부담 증가와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능력 감소가 각각 43.8%, 39.3%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

< 주5일제 도입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 >

(단위: 업체수, %)

	임금부담 증가	근무시간 단축으로 생산능력 감소	근무분위기 해이	근로자 사기진작 및 생산성 증가	기 타
업체수	207	186	56	16	8
점유율	43.8	39.3	11.8	3.4	1.7

— 응답업체의 55.2%가 6%이상의 임금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10%이상의 임금증가를 예상하는 업체는 22.8%에 달함

< 주5일제 도입시 예상 임금증가율 >

(단위: 업체수, %)

	2%미만	2%이상 ~4%미만	4%이상 ~6%미만	6%이상 ~8%미만	8%이상 ~10%미만	10%이상	기 타
업체수	49	64	87	67	86	108	12
점유율	10.4	13.5	18.4	14.2	18.2	22.8	2.5

□ 주5일제에 대비한 업계의 대책은 자동화 추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 26.4%, R&D 확대를 통한 품질개선 23.9% 등으로 다수 차지

* 무역협회 무역진흥팀 설문조사(2003.9)

— 중국 등으로의 공장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도 17.8%에 달함

< 주5일제에 대비한 업계의 대책 >

(단위: 업체수, %)

	자동화추진 으로 생산성 향상	R&D확대 를 통한 품질개선	경비축소등을 통한 원가상승 억제	중국등으로 공장이전	별대책 없음	기 타
업체수	125	113	95	84	46	10
점유율	26.4	23.9	20.1	17.8	9.7	2.1

□ 정부 및 관련기관에의 요망사항으로는 각종 세금감면확대, 자금 지원 및 신용대출 확대, 인력지원, R&D 지원확대 등으로 나타남

—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임금인상과 생산능력 감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·세제·인력 등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

- 설비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실질근로시간 단축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함
- R&D투자 확대를 유인, 기술 및 품질향상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함
- 이외에 금융지원 활성화, 탄력적 인력공급 체제구축 등을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이 요구됨

< 정부 및 관련기관에의 요망사항 >

(단위: 업체수, %)

	세금감면	자금지원 및 신용대출 확대	인력지원	R&D 지원확대	무역금융 금리인하	기 타
업체수	213	104	71	61	22	2
점유율	45.0	22.0	15.0	12.9	4.7	0.4

Focus 3

세계은행의 2004년 세계경제 전망*

□ 내년도 세계 경제는 미국 경제 회복과 함께 3.0% 성장할 것으로 전망

— 미국경제는 주식시장 강세, 수주량 증가, 생산 및 수출이 증가세로 반전되는 등 향후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음

【세계 경기 회복 기대 요인- 경제기초(fundamental)측면】

- ① 세계경제 전반적인 재정수지 개선
- ② 물가안정 기조 확산
- ③ 자유무역주의 확산 및 개방 진전

— 세계무역은 '03년 4.6%에서 '04년 7.9%로 증가세 확대 전망

< 2004년 세계 경제 전망 >

	실적		추정	전망	
	2000년	2001년	2002년	2003년	2004년
전세계실질GDP	4.0	1.3	1.9	2.0	3.0
- 고소득국	3.7	0.9	1.6	1.5	2.5
◦ 미국	3.8	0.3	2.4	2.2	3.4
◦ 일본	2.8	0.4	0.1	0.8	1.3
◦ 유로	3.5	1.5	0.8	0.7	1.7
- 개도국	5.1	2.9	3.3	4.0	4.9
◦ 동아시아	6.6	2.2	4.6	4.3	4.5
◦ 중남미	3.5	0.3	-0.8	1.8	3.7
◦ 중동	4.1	3.2	3.1	3.3	3.9
세계무역	13.1	-0.7	3.0	4.6	7.9

주 : 1. GDP는 1995년 불변달러 기준, 1995년 시장환율 적용

2. 전세계는 총 209개국을 포함

3. 고소득국은 OECD 24개국(한국포함) 및 홍콩, 대만 등 Non-OECD 33개국을 포함

4. 개도국은 고소득국을 제외한 나머지 152개국을 포함

* 자료 : World Bank, Global Economic Prospects 2004, Sept. 2003

Focus 4	중국의 가전 유통경로의 변화*
---------	------------------

□ 중국의 가전제품 유통은 기존 대형백화점 중심에서 전문가전마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

— 2002년 가전 총 매출액은 약 3,000억위엔이며, 이중 전문가전마트는 34%를 차지하여 33%의 대형백화점을 누르고 최대 유통채널로 부상. 이 밖에 브랜드 매장, 대형연쇄점이 나머지 33%를 차지

○ 2002년 전문가전마트별 전국 소매점을 보면 수닝(蘇寧)은 350개, 귀메이(國美)는 111개

○ 수닝(蘇寧)은 북상하면서, 귀메이(國美)는 남하하면서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음

— 특히, 대도시 흑백 가전제품 매출액의 대부분은 이들 전문가전마트가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네트워크 확장과 빠른 운송속도에 힘입어 날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

< 유통경로별 중국가전제품 시장점유율 추이 >

	2001년	2002년	비고
대형백화점	40%	33%	7%포인트 하락
전문가전마트	24%	34%	10%포인트 상승 귀메이(國美), 수닝(蘇寧), 따중(大中), 상하이 용러(永樂), 산리엔(三聯)등이 대표적임
브랜드전문매장	26%	22%	4%포인트 하락
대형연쇄점	10%	11%	1%포인트 상승

자료 : 중국국무원발전연구중심 시장경제연구소

* 한국무역협회 상해지부 작성(국무원발전연구중심 자료 요약)

□ 중국 가전 유통의 중심으로 새롭게 자리한 전문가전마트는 향후 소매관리기업으로 발전 변화할 전망

— 향후 전문가전마트는 단순한 가전소매마트가 아니라 가전소매마트 관리기업이 될 전망

○ 현재 귀메이(國美), 수닝(蘇寧) 2대 전문가전마트는 기업의 발전에 비해 정보, 물류, 마케팅 및 자금 회전 등이 낙후되어 있어 건전한 관리가 필요

○ 자산발전이 어느 정도의 규모에 달하면, 더욱 건전하고 과학적인 관리수단이 필요

— 귀메이(國美)와 수닝(蘇寧)은 가맹점을 모으는 방식으로 자사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

□ 향후 전문가전마트와 해외 유명 종합마트의 경쟁심화가 예상됨

— 전문가전마트와 해외 유명 종합마트는 거의 동시에 중국시장에 등장하여 전국 대도시에서 점포 선점을 서두르고 있음

○ 현재 종합마트는 까르푸, 월마트, 마이더롱 등 해외브랜드 위주

— 아직까지는 종합마트와 전문가전마트간의 마찰이 없으나, 두 유통경로가 중국시장에서 포화상태에 달하면 정면충돌이 불가피하게 될 것임

○ 해외 유명 종합마트는 전세계에 걸친 수많은 점포와 숙련된 유통업 운영기술 및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향후 전문가전마트에 큰 경쟁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

Brief 1

G-10 중앙은행 총재들, 세계경제 회복 낙관 (WSJ, 9/9)

- 미국, 일본 등 선진 10개국 모임인 G-10의 중앙은행 총재들은 9월 8일 스위스 바젤의 국제결제은행(BIS)에 모여 50년만의 최저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저금리가 투자와 소비를 촉진시키는 등 세계경제 회복을 이끌 것이라는 평가에 합의함
- 세계경제는 지난 2001년 경기침체 시작 이후 미국이 13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유럽중앙은행(ECB)가 7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함에 따라 회복세 신호를 나타내고 있음
- 미국의 기준금리는 45년만에 최저수준인 1.0%로 하락했으며 ECB의 2주간 재할인률은 2.0%까지 떨어졌고 일본의 차입금리는 0%를 유지하고 있음
- 이에 따라 미국 경제는 지난 2.4분기 연 3.1% 성장했고 유럽에서는 1.4분기 침체를 벗어나기 시작해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분야에서 확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은 2.4분기 0.6% 성장함
- ECB 집행위원이면서 벨기에 중앙은행 총재인 기 콰텡은 "미국과 일본의 경제활동은 이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"며 "유로권에서의 경제활동은 2.4분기 약한 모습을 보였으나 향후 수개월 전망은 밝다"는 의견을 피력함
- 다만 중앙은행 총재들은 미국 및 유럽의 높은 실업률에 주목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지난 8월 한달 동안에만 9만3천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유럽 최대의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독일의 실업률도 4년반 만에 최고수준인 10.6%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와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미국경제가 이로 인해 경기회복 지연 기미를 보일 경우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

News 1

광동성,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로 실업률 3% 유지
(경제일보, 9/8)

- 광동성은 사스와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38만개 등 연말까지 총 7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난해보다 0.1% 하락한 3.0%의 실업률을 유지할 전망
- 올해 상반기 중 광동성내 국유기업이 17만 명을 해고하고 사기업이 12만 명을 해고하는 등 총 31만 명의 신규실업자가 발생했지만 실업률을 낮추는 성과를 달성
- 상반기 사스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광동성 경제가 활기를 보이는 것은 사영기업이 1-7월중 12.6%의 성장을 이끄는 등 민간부분의 경제발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랐기 때문

News 2

일본 상장기업 경상이익 사상 최고 전망(日經, 9/7)

- 일본경제신문사가 2004년 3월 결산기준인 상장기업(1628사)의 실적전망을 집계한 바에 따르면, 연결경상이익은 전기비 16.7% 증가하여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
- 매출액은 0.9% 증가에 그쳤지만, 前期까지 실시한 고정비의 감축 효과가 나타나고 주식평가손 등의 감소도 이익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
- 하반기의 수익 환경은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철강 등 소재산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, 6월 시점의 전망에 비하여 경상이익 증가율은 1.7%포인트 상향 조정되었음

News 1

태국-인도 FTA 기본협정, 10월 체결 전망 (The Hindu, 9/8)

- 태국의 Thaksin Shinawatra 총리는 인도의 Vajpayee 총리가 태국을 방문하는 10월 인도와 자유무역협정(FTA)을 위한 기본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힘
- 한편, 태국 Adisai Bodharamik 상무장관에 따르면, 양국은 FTA 논의 대상품목을 당초 양국간 교역품목의 5% 이하인 50개 품목에서 10% 가량인 100개 이상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함
- 양국은 방콕에서 10월 5-7일간의 구체적인 협상 이후 양국 정상에 기본 협정에 서명할 예정임

News 2

태국, 싱가포르, 조기 ASEAN 경제공동체(AEC) 구축 희망 (AFX Asia, 9/7)

- 싱가포르의 Goh Chok Tong 총리와 태국의 Thaksin Shinawatra 총리는 10월 인도 발리에서 개최되는 ASEAN 정상회의에서 ASEAN 경제공동체(AEC: ASEAN Economic Community)를 당초 일정보다 빨리 구축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힘
- 중국과 인도가 이웃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으며, ASEAN은 중국, 인도와 각각 늦어도 2012년까지 FTA를 체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당초 AEC 구축의 목표기한인 2020년보다 더 앞당겨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
- ASEAN은 올해부터 역내 관세율을 0-5%로 감축시켰으며, 향후 개방분야를 확대시키고 궁극적으로 EU 형식의 경제공동체인 AEC를 창설하고자 함